



제6대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사

2024. 6.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입니다.

먼저, 역경과 고난, 도전과 극복의 시간을 넘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이끌어 주신 선배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 위에서
미래 소방의 청사진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가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애써주신

남화영 전 청장님과 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우리 소방이 일궈온 성장과 발전의 결실들을
내실 있게 이어가고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의 종류와
방향성이 매우 다변화된 상황에서도,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그 기대와 바람에 부합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망을 이루는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우리 소방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소방 가족 여러분

우리 소방은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를 관통하며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재난 대응 체계와 기술,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은 언제나 재난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은 더 커졌지만,
한편, 소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예전과 달리
더 예리하고 냉혹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소방청장으로서,
‘신뢰받는 소방.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을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시대적 소임을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기 위해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여겨 발생했던
수많은 재난사고**를 목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고, 곳곳에 만연한
안전 사각지대의 취약성을 들추어내어

안전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그 토양 위에
공동체의 견고한 안전 의식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발굴해** 나갑시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은 이미 모든 재난에 신속·최대·최고의 대응 기조로
유사시 국민의 불안과 국가의 위기를
초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지휘관 중심의 소방력 동원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조·구급 출동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중증 환자 긴급 이송 체계 개선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재난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 장비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장비 보강에 집중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넓은 분야에 걸쳐 광폭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의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소방 장비의 혁신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활동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한 재난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관·학 등 다양한 협력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소방 장비와 기술의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선진국의 기준과 사례를 분석, 반영하여 소방 장비 기술기준의 품질을 항구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내 소방 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확대와 해외인증 획득 경비지원 등 **K-소방산업 육성과 진흥**에도 지금껏 그래왔듯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소방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방의 진정한 승부처는 현장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은 현장에 있다는

너무도 자명한 명제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실용과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시스템 마련과

국민 안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담보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존중받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복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제복 영웅들과 가족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장기근무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공상 공무원의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고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분들의 어려움까지
먼저 헤아리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구성원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로가 신뢰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소방이 직면한 과제와 비전이 공존하는 이 시점에
제가 소방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수십 년간 현장과 행정업무,
지휘관을 거치며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방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남은 시간을 모두 쏟아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을 높이고,
영예로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소신이 존중받고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격의 없이 나누는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디딤돌이 되고,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청장의 중책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남화영 전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을 모든 소방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소방청장 **허식곤**